



행복한 동행을 이끌다

노후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고민은 여민동락이 마을공동체 복지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다. 정서적, 신체적 건강과 함께 일거리, 이웃과의 관계를 지속하며 자신의 마을을 떠나지 않고 익숙한 삶을 이어가는 것, 이 같은 보통의 행복을 위해 여민동락은 사회적 농업 농장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소재지 여민동락 영농조합법인(거점농장)_ 전남 영광군 묘량면 동삼로길 95-36(대표: 이은경) 사회적 농장 지장 2018년

농장의 설립 배경과 목적이 궁금합니다.

여민동락 공동체는 2007년 귀촌인들이 설립한 마을공동체로 마을 안에서 주민들과 협력하여 지역 활성화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손쉽게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동락점빵'을 운영하고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어르신들과 함께 농업 활동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왔는데, 어르신들이 소득은 물론, 사회적 소속감으로 삶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러한 농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2018년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며 사회적 농업을 시작했고, 어르신들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농업 농장에서 어르신들은 어떤 일을 하시지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강도의 작목을 선택하여 재배하고 있습니다. 수익의 극대화보다는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가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으로 조절합니다. 고정적으로 일할 곳이 있고 기본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호응도 좋습니다. 참여인원이 점점 늘어 20개 마을 50명이 마을별로 주마다 일정하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민동락이 다른 농장의 사회적 농업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 인가요?

다른 농촌 마을도 상황은 비슷하겠지만 저희 마을의 인구 상당수가 65세 이상의 어르신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큰 행복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고 건강하게 살면서 소소하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지관 등의 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아닌 마을 단위의 어르신들을 직접 연결하여 농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사회적 농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어 활동에 필요한 부분, 요구사항 등에 대해 자신감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받아 진행하고 농장에서 나오는 판매 수익금도 기본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분배돼 어르신들의 소득이 됩니다.

오랫동안 이끌어 온 활동에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저희가 추구하는 사회적 농업은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해 단순히 소득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능동적인 의지를 만들고 스스로 움직여 활력을 되찾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건강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교육과 여가, 문화 등에 대한 충족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다양한 교육 활동과 함께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보강하고, 외부에서 오는 체험 활동도 늘려 이에 맞는 어르신들의 활동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청년일자리 사업과도 연계한다면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고 도시와 농촌이 연결되어 사회적 농업의 본래 목적인 사회통합과 세대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익의 극대화보다는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가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으로 조절합니다. 고정적으로 일할 곳이 있고 기본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호응도 좋습니다.”

mini interview

강옥금(농업 활동 참여) 농사일이야 예전에 많이 했지만, 이제는 나이 들어 힘들어서 못 해요. 그렇지만 여기 일은 힘이 들지가 않아서 취미로 할 수 있어요. 10년 넘게 해오고 있는데 집에만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모두 아는 얼굴들이라 만나면 반갑기도 하고 마음이 즐거워져요.



고령노인이 참여하는 '농작업 활동'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농작물 재배 및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진행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삶의 활력을 높여요.



치매어르신과 함께하는 '치매동행'

노인주간복지센터의 중고도 치매 어르신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간단한 농업 활동을 체험해요.

우리 농장 키워드

초등학생들의 체험 교실, '돌보는 농부학교'



아이들이 안전하게 텃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학교 인근에 작은 텃밭을 두어 격주로 운영해요.



귀농귀촌 도시청년 이주돌봄



도시의 청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숙소를 제공해 2주간 지내며 여민동락의 모든 것을 함께해요.